

국립공원 제도개선시민위 '100대 개혁의제' 설문

“집단시설지구 공원 밖 이전”  
“공원내 사유지 국가서 매입”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 제도는 환경관련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가공원법 및 공원법상 집단시설 지구는 공원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사할소유지(8.3%) 등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8월 22일 북한산 원불교청소소년수련원에서 하반기 수련회를 갖고 지난 7월 한달간 실시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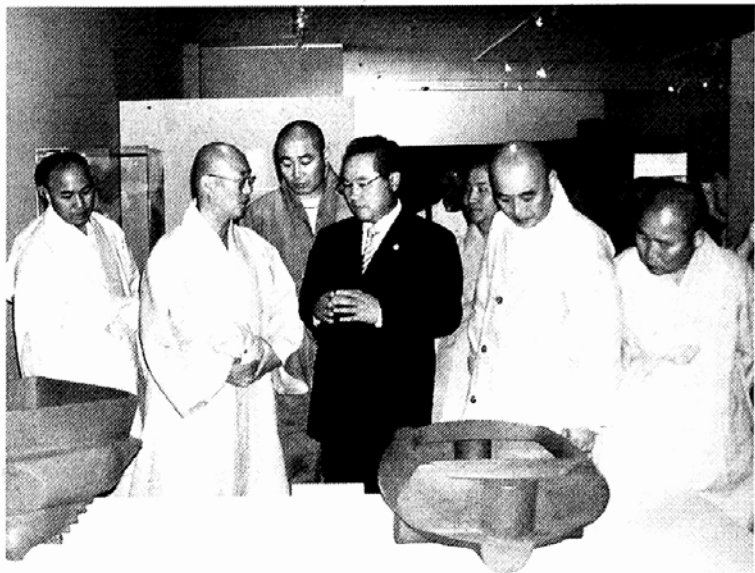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및 지방 사무소, 환경부 및 지자체, 국회의원, 조계종, 환경단체 관계자 등 전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관리법, 산림법 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계법 정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특히 환경단체들의 사후약방문식의 일회성 환경운동을 근원적으로 개선, 입법단계부터 환경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각종 개발 특별법 등 상이한 목적의 여러 법률에 의해 일원적인 관리가 제약받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거나 국가공원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명승, 사적, 기념물 등은 보전관리가 필요함으로서 국가공원법, 국립공원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제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립공원 관련 법제 분석’이란 발제문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 제도를 환경관련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 내지 문화재를 보호·보전하는 쪽으로 특화되어야 하고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 자체는 유지하되 근거법률의 통폐합 및 합할 행정청 이관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립공원 관리체제와 관련, 전문성을 담보하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보존관리를 가능케 하는 ‘국가공원청’ 설립이 필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주민, 사찰,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공원법 자문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폐쇄, 공원밖으로의 이전이 필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하촌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제시했다. 사할소유지(8.3%), 기타 사유지(34.6%) 등 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또는 자금조성을 통해 매입해야하고, 사할과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사할-불교시민단체-공원관리청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립공원임장료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보조기금으로 변경 인상하는 방안과 공원별 차등징수, 폐지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국립공원 임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대해서도 분리징수, 관람료 폐지, 공원임장료 폐지, 합동징수 등 의견집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회암사 박물관 짓겠다”

林경기지사, 조계종 부국장스님들과 면담

조계종 부국장스님 20여명이 8월 28일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공식초청으로 인천 주행사장을 방문했다. 스님들은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안내에 따라 세계도자기 전시관과 가마터를 견학하고, 다도시읍장에서 차를 마시며 세계도자기엑스포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조계종 부국장스님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통불교 육성을 위해 회암사지와 고달사지등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회암사지의 경우 도로개설과 레미콘공장 이전 등 주변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며, 현지에 회암사 박물관을 지어 발굴작업

‘도자기 엑스포’ 간 스님들

조계종 부국장스님 20여명이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8월 28일 인천 주행사장을 방문하여 임창렬 경기도지사(가운데)와 함께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감상하고 있다.

결과 나오는 유물은 모두 전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지사는 “용주사 앞에 효행촌을 건립하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옆에 위치한 봉영사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해 한국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0일 문을 연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10월 28일까지 80일간 경기도 인천 여주 팜주에서 열린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는 28일 현재까지 200여만명이 다녀갔으며, 외국인은 6만명이 다녀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즉각 중단”

중단협 공청회개최 촉구

이호웅의원 반대 표명

시민모임 ‘환경평가 잘못’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반대운동이 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중단협회의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8월 31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자연환경 및 종교문화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북한산 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설교통부, 도로중사, 불교계,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

하는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중단협은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이 환경, 교통, 공익성 측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8월 30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도봉산)터널구간 생태분야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반락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봉호 전문위원은 사패산 터널구간의 식생조사 표본조사구 수가 적어 대상지의 자연생태계 평가를 위한 대표성이 없고, 평가서상의 녹지자연도 평정 근거자료가 없어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으며, 훼손지역 이식수목에 대한 산정 및 터널 입·출구 지역 생태계 복원의 근거자료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월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중단협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국회보> 8월호에 게재한 ‘북한산국립공원을 생각한다’ 제하의 의견시평을 통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한 것은 개발로 인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최소한 이것들만이라도 자연상태로 보전하자는 뜻이 가장 크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사패산 터널공사 하용될 경우 제2, 제3의 국립공원 훼손계획이 생길 것”이라며 북한산 관통도로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대구 관음사 납골당 ‘마찰’

향의방문등 주민반대

통도사 대구포교당 관음사주지 우회가 8월 24일 대구 납골당에 신청한 납골당 설치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납골당이 들어설 관음사 인근 대명5동과 봉담3동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내세우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해당 구청인 남구청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허가 여부를 놓고 상당 기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허가와 관련,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음사는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납골당 설치는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울진 불영사 수행환경 훼손 ‘위기’

왕피천에 대형댐 계획

안거기간이 아닌 산철에도 1백여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는 울진 불영사가 수행환경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경북 울진군 서면 불영사 인근을 흐르는 왕피천을 막아 저수용량 2억톤 규모의 속사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왕피천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흔히 발견되는 민물어종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의 원형인 금강송(송양목)의 최대 군락지로서, 인근 소평리에는 1610ha의 금강송 유전자 보습림이 있어 자연 생태계의 파괴도 우려된다. 불교환경연대(대중) 정성운 사무처장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함께 불영사 천축산원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춘천불교방송 부지 매입 등 개국준비 ‘한창’

조계종 3교구 신홍사가 추진 중인 춘천불교방송국 개국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홍사에 따르면 내달 초 춘천시 동면 느릿재 부근에 2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총 40여억원을 들여 건물신축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초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홍사는 건물이 완공되는 데로 방송장비 구입과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초파일을 전후해 개국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춘천불교방송의 연주소 건물이 어느정도 완공되면 올해 말 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불교방송국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개국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사형제 폐지하라 7대교단 한목소리

국회의원 138명도 서명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교단 대표자로 구성된 사형제지법종교연합과 한국사형제지법종교연합회는 8월 27일 롯데호텔 36층 샤프테 룸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 일·대만 국제연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활동가 및 단체대표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2001 사형제지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아시아 포럼을 위한 조직위원회 준비, 2003년 초 아시아지역에서의 제2회 사형제 폐지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의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이 재석의원 과반수 136명을 넘어선 138명이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경 기자

“유선방송 불법선교 단속”

조계종, 방송위에 촉구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양산)는 8월 27일 방송위원회에 중계유선방송의 불법 기록교체방송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적으로 기록교체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은 서울 지역의 중계유선방송 11곳과 기존에 접수된 부산지역 중계유선방송 2곳 등 13곳으로 파악된다”며 “방송위원회에 이들 13곳의 불법 방송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 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공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후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마음고인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yo@hanmail.net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팔괘 만다라 액자. 소재: 팔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자형.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2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x45cm.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 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1) 334-9490, 334-9491 야간: (031) 706-306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촌락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니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비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에 비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에 비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울 (02) 713-7798, 701-4716.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자연산삼 전문상담(산삼) 채취가격으로 공급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